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김정득 베드로

(? - 1801)



김정득은 충청도 홍주의 대흥 고을에서 태어나 친척 김광옥 안드레아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이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김정득은 김 안드레아와 함께 교회 서적과 성물을 지니고 공주 무성산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탓에 쉽게 발각되었다. 이들은 각각 홍주와 예산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청주로 이송되었고 한양에까지 보내졌다. 그 과정에서 엄한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결국 8월 21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김정득에게 내려진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득은) 국가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는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속에 숨어 살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속이고 유혹하였다. … 그 죄상을 생각해 보니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그리고 ‘각각 고향인 예산과 대흥으로 압송하여 참수하라.’는 명령이 덧붙여졌다.

김정득과 김 안드레아는 기쁜 얼굴로 고향을 향해 내려가다가 예산에서 헤어질 시간이 되자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튿날, 김정득이 대흥 읍내에서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8월 25일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이사 58,7-10

화답송 시편 112(111),4-5.6-7.8과 9(4가)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2독서 1코린 2,1-5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마태 5,13-16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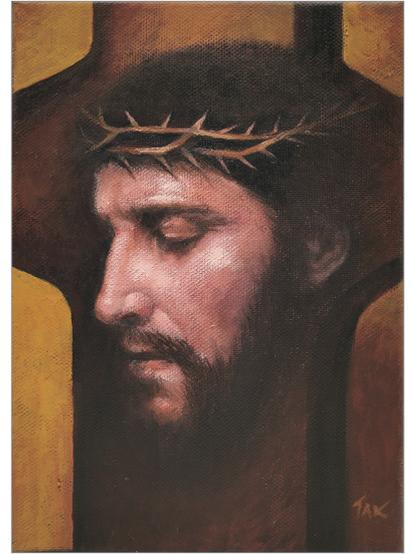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새 사제 인사 | 심재민 세례자요한 신부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신자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사제로 서품된 심재민 세례자요한 신부입니다. 제가 서품 성구로 선택한 말씀은 **“아버지 뜻대로”(루카 22,42)**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크고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오래된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며 성당은 늘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사제직에 대한 동경을 가졌지만, 고등학생 때 예비 신학생 모임을 나가던 중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일까?’라는 질문 앞에 멈추어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와 주일학교 교사 생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던 시간을 지나며, 그 동경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성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은 제 성소를 더욱 분명히 해주었고,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확신으로 기쁘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제, 미사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 사제 인사 | 이학주 대건안드레아 신부



찬미 예수님, 이번에 서품식을 통해 사제가 된 이학주 대건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예레 31,3)**입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이 구절을 선택한 건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제 성소의 꿈을 안고 신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여럿이지만, 그 중 어느 한 성가를 접하면서 일었던 마음의 불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가사는 당신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할 종을 찾으시는 하느님과 이에 응답하는 이의 대화였습니다. 여기에 감명받아 예비 신학생 모임을 시작한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의 사명감으로 성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제 성소를 본인의 사명감으로만 설명하려 한 것이 교만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를 사제 성소로 이끌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한 것은 제 사명감 이전에 하느님의 자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답하기에 앞서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는데, 그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제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아 사제직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감히 저희 교우 여러분께 기도를 청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기쁘게 살며 그분 사랑을 나누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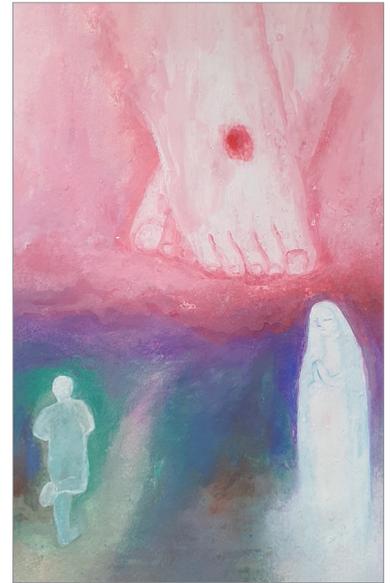
새 사제 인사 | 박준형 프란치스코 신부



찬미 예수님, 이번에 사제로 서품된 박준형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제 서품 성구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내기를 빕니다. 기쁜 마음으로,”(콜로 1,11)**입니다. 저는 신학교 피정 중 이 말씀에 오래 머무르며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거나 그분께 힘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사제의 삶을 단 하루도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구의 마지막 말씀인 **“기쁜 마음으로”**는 사제로서 기쁘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 순간 하느님께서 저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가끔은 기도가 너무 안 되거나 하느님의 현존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매 순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며, 몰이해와 무의미함의 유혹을 잘 견뎌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과분하게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게 될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에 보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분 마음을 닮고 많은 분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새 사제 인사 | 홍요한 사도요한 신부



찬미 예수님, 지난 2월 4일에 사제품을 받은 홍요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사제품을 준비하며 저는 큰 고민과 두려움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사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내가 과연 좋은 사제가 될 수 있을까?’ 사제직을 바라보며 달려온 시간은 길었지만, 정작 제 발로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에, 막연한 걱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의 풍랑 속에서 저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파

도가 ‘나’라는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 때도, 주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저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셨듯, 제게도 풍랑 위를 걸어 당신께 오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세상이 무서워 몇 달을 끙끙대던 제게 이 복음 구절은 큰 충격이자 위로였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사제의 길은 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달으며 저는 이 말씀을 제 서품 성구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제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해 그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제, 예수님을 닮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



새 사제 인사 | 김부영 사도요한 신부



찬미 예수님, 지난 2월 4일 사제로 서품받은 김부영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필리 2,5)**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사제의 정체성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강렬하게 느낀 두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30일 피정 중 몸과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신 예수님을

관상하며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의 신학교 추천 신부님의 모습에서입니다. 신부님은 신자들을 따뜻하게 대하시며, 제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제가 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수님을 닮아 따뜻한 사제가 되고자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일’이 일치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제직을 꿈꾸며 깨달은 점은, 사제는 앞서 말한 세 가지가 하나 되는 축복의 길을 걷고 직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사제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신자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교회의 직무를 기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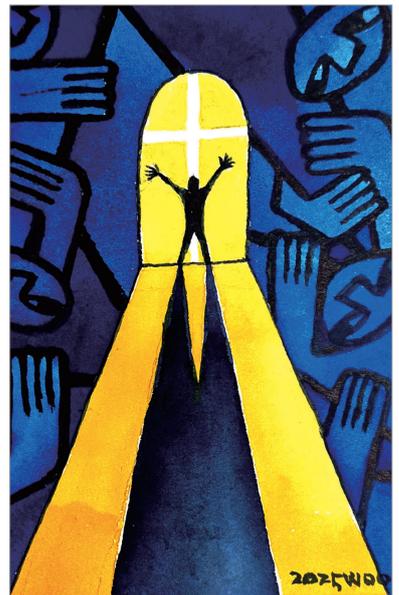
새 사제 인사 | 박승준 요셉 신부



안녕하세요. 2월 4일 사제품을 받은 박승준 요셉 신부입니다. 제 서품 성구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입니다. 이 말씀을 서품 성구로 정한 이유는, 제 부족함으로 세상 유혹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약함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약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견뎌낼 용기를 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혼자의 힘으로 세상에서 오는, 또한 자신의 부족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에 힘입어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 혼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신자들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제로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며 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도 하느님에게서 구원받고 교회의 신자들을 그분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직무 사제직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안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





교구 성소후원회 새사제 첫미사

일시 2/13(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구
소식**

2026년 예비신학생 첫모임

일시 2/21(토)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미사주례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문의 031-850-1468 성소국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2/13(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강사 의정부교구 말씀 봉사자 (상담 봉사자 축복기도)

문의 010-2127-0032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 주말 성령묵상회

일시 2/21~3/7, 매주(토) 13시~17시 [3주간]

장소 성령쇄신봉사회 가능동 교육관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 90)

회비 2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010-9787-4202

2026년 예비 고1 피정 <3차> 3~4지구

일시 2/28(토) 13시~17시

장소 에파타 청년센터 (의정부)

대상 의정부교구 내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예정 청소년

회비 1만원 (참가 청소년만 참가비 납부)

접수 2/23(월)까지

문의 031-850-1459 청소년부

신청 ▶



제44기 복음화학교 개강

신자들을 새로운 복음화의 삶으로 이끌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 양성

일시 2/24(화) 19:30

장소 마두동 성당

문의 010-5182-3066 복음화학교 교무국

상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14~6/13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14~12/5 매주(토) 09시~18시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장소 신앙교육원

문의 031-874-6272

참조 ▶



특별헌금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지난 12월 14일, **자선 주일 특별헌금**으로 **146,553,401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의정부교구 사회복지회로 보내져 우리 교구 내 사회복지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2/10 차선미 회장, 2/17 명절로 쉽니다
담당사제: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2월 토요일 치유 피정 및 천송이 천번 기도회

2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일시: 2/14(토) 12시~17:30
강사: 송병섭 아오스딩 신부

천송이 천번 기도회: 2/23(월) 12:30~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집 대강당 (미사·안수·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02-874-6346 삼성산 성령 수녀회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제주 순례: 2/27(금)~3/1(주일),
3/27(금)~29(주일), 5/9(토)~11(월)
추자도 성지순례: 3/5(목)~8(주일),
3/12(목)~14(토), 3/18(수)~21(토),
5/3(주일)~6(수), 5/29(금)~6/1(월)
문의: 064-732-4702 면형익집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2/14(토) 10시, 풍동 성당
2/21(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3/6(금)~14(토), 4/17(금)~25(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겨울 한라산 눈꽃산행과 자연순례:
2/20(금)~22(주일), 2/26(목)~28(토)
3월 사순시기 제주 성지순례와 올레길, 자연순례
추자도: 3/1(주일)~4(수), 3/29(주일)~31(화)
차귀도: 3/7(토)~9(월), 3/12(목)~14(토)
3/16(월)~18(수), 3/26(목)~28(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3/14(토) 11시 ~ 15(주일) 16시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9만원 (사전 접수자만 피정 가능)
문의: 010-5490-5345

서울대교구 제4성북지구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수) 18시~21시 (말씀, 축복기도)
장소: 길음동 성당 소성전 (주차 가능)
강사: 2/11(수) 이상기

교육 · 모집 ▶▶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6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부동산학 전공 모집

모집: 부동산학 전공 학위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취업·대학원 진학 가능
접수: 2/27(금)까지
문의: 02-705-8718, scec.sogang.ac.kr

예수회 센터 봄학기 현장 및 비대면 강좌 - 3월 개강

비블리오 드라마, 현장: 매주(월) 10시~12:30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하늘씨앗 깨어나기 (영성수련):
매주(수) 10시~12:30 [13주 과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월·목) 19:30~22시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방법: 우편 또는 이러닝(동영상) 중 선택
접수: 2/28(토)까지, 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202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공부
접수: 2/20(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2026년 1학기 <여정> 성경공부 비대면 개강

3/9 매주(월) 20시~22시 마태오복음
3/3 매주(화) 20시~22시 모세오경
3/4 매주(수) 20시~22시 예언서
문의: 010-8352-9986 일산 여정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 1학기 수강생 모집

인터넷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일시: 3/12~6/25, 매주(목) 21:30~22:30 [16주간]
지도: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팔로티회)
신청 및 문의: 010-8911-5957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10일]
날짜: 3/16(월)~25(수), 4/20(월)~29(수),
5/18(월)~27(수), 6/15(월)~24(수)
장소: 강원도 홍천 (서울 출발) / 대상: 60세 이상
회비: 100만원 / 문의: 010-7451-9707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II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 정희완 신부
청년은 교회 어디에 서있나? - 주원준
삶의 자리에서 순례자로 살기 - 변미리
인문학은 어떻게 신앙과 만나는가? - 김경집
일시: 3/5~26, 매주(목) 19:30 [4강]
방식: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 / 청년 할인
문의: 02-2135-9398 한국CLC
http:// www.kclc.or.kr

시스띠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훈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일시: (화) 19시 / 장소: 아람누리 (정발산)
문의: 010-9842-8818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모신심 묵상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일시: 3/2~4/6, 매주(월) 09:20~12:30 [6주]
장소: 일산 성당
회비: 2만원 (6주간, 교재비 별도)
교재: 봉헌을 위한 33일 간의 준비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지음)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로	서울 수녀원 (명동 가톨릭회관 209호)	010-9353-1773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청년 남자 수도생활 성소자		010-5195-3217
	한국외방선교회	3/8(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연령회 활동실무(상장예식 중심)과정 수강생 모집

내용: 연도 의미(예식)에 맞는 가창법과
상장예식의 진행 방법
일시: 3월~6월, 매주(토) 15시~17시
장소: 가톨릭대평생교육원 (부천 역곡)
접수: 2/22(주일)까지, lifelong.catholic.ac.kr
문의: 02-2164-6587

한국어교실 강사 모집

일시: 3월부터 매주일 3시간
장소: 파주 엑소더스
주제: 한국어 교실 선생님 1명 (자원봉사)
자격: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접수: 2/12(목)까지
문의: 031-948-8105 한국어 교실 담당자

ICPE 로고스 맘 온라인 신앙교육

일시: 3/11(수) 10시~12시
대상: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문의: 010-5646-6594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교육원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자격: 16세 이상의 견진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희망하는 분
접수: 2/28(토)까지
문의: 010-3956-0367 양성담당
010-5233-8608 지구봉사자

안내 · 기타 ▶▶

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특별피정: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4박15일)
문의: 010-5735-4578

2026년 간 김에 순례 - 성지순례

유럽 수도원 및 성지(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문의: 010-5577-3605
※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배너 참조

이태리 성체성혈 성지순례

이태리 성체성혈 기적 성지 10일
(아시시, 산조반니로폰도, 로마 포함)
4/9(목) 출발 / 지도: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7(화)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50만원)
4/14(화) 홍콩, 마카오 (4일, 170만원)
5/12(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
6/9(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6/23(화)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 (5일, 160만원)
장춘, 길림, 이도백하, 백두산, 용정, 연길, 도문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8(수)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KE)
4/10(금) 5/12(화) 산티아고 도보순례
(13일, 10일, KE)
4/21(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2일, 575만원, KE)
5/11(월) 나가사키 순례 (4일, 149만원)
5/12(화) 반뇌, 루르드, 스페인, 파티마
(12일, 549만원)
5/24(주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559만원)
6/4(목)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25만원)
6/22(월) 발칸, 메주고리에 (11일, 41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https://blog.naver.com/ggreen1004>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4/13(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대한항공)
4/14(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원지 (12일)
5/4(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5/18(월) 이탈리아, 프랑스 루르드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나주 윤 율리아 문제와 관련한 주의 요청

(중협주 제2026-30호 공문 요약)

나주 윤 율리아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대교구는 교황청 신앙교리성(현 신앙교리부)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윤 율리아와 추종자들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윤 율리아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사, 전례, 성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홍보물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1998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그러나 이후에도 윤 율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할** 뿐 아니라 교황청과 교황 성하, 고위 성직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른바 '나주 성모 기적'에 대한 교회의 공식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나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지 말고,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전파되는 나주 윤 율리아 문제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교회의 사무총장 이철수 신부

나주 윤 율리아 관련 광주대교구 공지 모음



성반과 성작

지난 2월 4일 거행된 사제·부제 서품식에서는 새 사제들에게 성반과 성작을 수여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사제는 미사 때마다 성반에 담긴 빵과 성작에 담긴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축성합니다. 오늘은 미사 때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미사 경본 총지침」 327항)인 성반과 성작에 관해 알아봅니다.

성반(聖盤)은 미사 중 축성될 제병을 놓는, 둥글고 평평하면서 약간 오목한 접시입니다. 성작(聖爵)은 축성될 포도주를 담는 잔인데, 일반적으로 윗부분의 잔(poculum)과 중간 마디가 있는 대(nodus) 그리고 받침(fundamentum)으로 구성됩니다. 때로는 만드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성작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형태는 전례 용도와 그 지역의 관습에 부합해야 하고, 일상 용도로 쓰이는 잔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332항).

초기 교회에서는 성작이 나무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유리, 구리, 청동, 천연 수정, 줄무늬 마노 같은 재료들도 사용되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306~337년 재위) 시대에 이르러 금이나 은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354~430년)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347~407년) 역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성작이 만들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금과 은을 제외한 다른 재료들이 금지되었는데, 1310년에 열린 트리어 교회 회의에서는 성반과 성작을 금으로 만들되, 그럴 수 없을 땐 적어도 은으로 된 성반과 성작에 도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주교회의의 판단과 사도좌의 승인에 따라, 용도에 맞으면 그 지역에서 고상하다고 여겨지는 견고한 다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69년 교황청 경신성성(현 경신성사부)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구리, 주석, 청동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잔의 안쪽은 반드시 도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칠보나 자개처럼 귀하고 값진 재료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깨지거나 부서지는 건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329항). 또한 성작은 주님의 성혈을 담기 때문에, 잔 부분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재료이어야 합니다. 받침대 부분은 단단하고 품위 있는 다른 재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330항).

예로부터 가톨릭교회는 미사 때 사용하는 여러 기물 중에서 “포도주와 빵을 담아 봉헌하고 축성하며 받아 모시는 데 쓰는 성작과 성반을 특별히 소중하게”(327항) 여겨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식을 넘어, 성체와 성혈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몸소 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흠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체성사의 놀라운 신비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제들 특히 앞으로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사제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 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행주성당** 성모순례지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뫼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 지 / 단 체

● **홍요한 사도요한 새 사제 본당 미사 집전**
일 시: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새 신부님의 안수예식이 있습니다.

● **설 합동 위령 미사**
일 시: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설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 하실분은 2월 13일 금요일 까지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 가지 회수**
2월 18일 재의 수요일에 참된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예절에 사용될 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나누어 드린 성 가지를 2월 11일 수요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사목협의 회의**
일 시: 2월 1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신학생 학비 후원 2차 헌금**
오늘은 의정부교구 신학생 학비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2026년 본당 제대 초 봉헌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류일영 요셉	100,000	오윤서 율리아	60,000
박민숙 카타리나	60,000	최재춘 마리아	120,000
이경예 마르타	60,000	류은희 소피아	120,000
황선아 카타리나	60,000	김문숙 로사	100,000
유윤재 로사	60,000	배성은 소사아가다	60,000
권혁초 데레사	60,000	한동욱 돈보스코	120,000
선길자 아가다	120,000	오정화 아네스	100,000
문영숙 마리아	60,000	정유헌 아네스	60,000
이복순 마리아	120,000	한백중 보나	180,000
유숙희 안나	120,000	김영순 엘리사벳	60,000
신은석 안젤라	60,000	박광배 베드로	60,000
양경희 루시아	100,000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2월 8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이영자 세실리아, 구미경 리베라따	
2월 15일	주송자	오정화 아네스
	고백주 안토니오, 허경옥 도로테아	

우리들의 정성(1/26 - 2/1)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3건 130,000원
주 일 헌 금 749,000원

● **감 사 예 물**
김수진 20,000원

화답송

